

우수상

LH 시니어 사원 체험수기공모

수원 오목천동 상송주공아파트 학습센터

진증길

참여 및 지원 동기:

퇴행성 목 디스크가 오래되어 돌출된 척추에 농양이 신경을 눌러 하반신에 불완전마비가 왔고 이로 인해 1년 지나자 평생직장인 줄 알았던 교직에서 퇴직되어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6년을 병원에서 지냈으며 그 이후에도 휠체어에 의지하여 세상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운동하며 내 운명에 도전하며 13년을 지냈습니다. 원치 않던 나의 계급장은 지체장애 2급. 그렇게 지루한 삶 가운데 나에게 연금 공단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안내전화가 날아왔습니다. 평소에 영어를 좋아해서 퇴직 전에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영어 성경을 즐겨 읽었으며 외국인과 대화하기를 좋아했기에, 휠체어에 의지해서도 틈틈이 CNN 방송을 보고 설교 필기를 영어로 했던 나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르침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원래 같은 아파트 단지 학생들에게 자원 봉사로 학습지도를 하려고 생각해 왔는데 LH공사와 인력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주공아파트 학습센터의 학생교육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줄 것을 확신했기에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생에 대한 목표와 수업 방법:

1> 어린 나이에 영어를 배우면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기가 말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

쓰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듣고 소리를 반복하여 들어서 뜻을 알고 생활 속에 익혀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외국어를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이 소망하는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회화 위주로 교육하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서툴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영어로 말하여 여러 번 듣는 중에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가르쳐 나라를 위해 후에 크게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인성 교육에 집중하였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먼저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아이로 기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외 불우 아동을 돕고 있는데 남을 돕고 섬기는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창조주를 기쁘게 생각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하는 일이 힘들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삶일지라도 인생의 행복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성교육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4> 문법과 대화 단어가 녹아있는 패턴 문형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단어를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의 패턴을 익혀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어 활용함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질문을 받고 Free talking을 중심으로 수업하였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가 흥미가 없으면 효과가 적기에 본인이 궁금해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질문하게 하여,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게 하였습니다.

6> 학습센터에서 나눠준 수업용 공책에 시간을 체크하여 수업량을 조절하며, 우선 듣고 말하기를 주로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읽고 쓰기도 반복교육으로 자기 것이 되게 하여 영어지식이 흘러넘치게 하여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지도했습니다.

활동과정 중 보람되고 감동적인 미담사례와 소감과 감사한일

1> 내가 재미있게 공부했던 전공과목인 영어를 가르치게 되어나 자신 재교육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게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으로 사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나 같은 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은 남은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2> 그동안 혼자 동영상으로만 하는 공부였기에 영어에 흥미를 잃고 있던 윤창민 학생이 재미있게 잘 따라하고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가르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사의 힘은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14년 동안 누리지 못한 기쁨을 이번 기회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영어공부를 즐겁고 재미있게 한다고 좋아하니 큰 보람을 느끼고 창민이 어머니가 전화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니 60이 넘는 나이에 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처럼 가슴이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가르치거나 돕는 아동이 잘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봅니다. 초반에 에어컨 놓기 전에 엄청 더웠는데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를 어머니가 가지고 오셔서 같은 학습실 쓰는 선생님들에게까지 주면서 윤창민을 가르치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 주시니 정말 고마웠고 아이가 잘 적응하고 좋아하니 부모님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내심 좋았습니다.

3> 창민이가 수영한 뒤에 학습에 참여하는데 어떤 때는 피곤한지 힘이 없고 자꾸 졸려 해서 우리 같이 서서 공부하자고 제안하여 같이 일어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이 깨지고 공부하여 그날 공부를 해야 할 목표 할당량을 효과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교사의 지시가 아닌 아이가 최적의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변화를 주며 가르쳐야 함을 배웠습니다. 학습에는 왕도가 없기에 꾸준히 노력하고 애써 궁리하여 최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에 임해야 효과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4> 가르치는 아동이 처음에 만날 때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어색해하며 인사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14년 만에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어서 좀 두렵고 어색한데 아이까지 반응이 안 좋으니까 어찌할지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이 영어로 알고 싶은 것, 의문점, 아동의 관심분야 수준에 맞는 15분정도의 free talking을 하면서 실력을 가

지고 가르치니 재미있게 따라하면서 공부했고 선생님 대하는 태도도 공손해졌습니다. 이제는 하이 파이브로 인사도 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의 실력이 아동을 겸손하게 만들고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껴 더 노력하여 더 잘 가르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퇴직 후 13년 동안 직장이 없어서 아내에게 생활비나 용돈이나 선물을 해 줄 수가 없었는데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을 받았을 때 여러 모습들이 떠올라 감개무량하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두근거림과 자랑스러움이 물밀 듯이 밀려왔고 오히려 많이 받았던 첫 월급보다 내게는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 때 아내가 힘들었는지 대상포진 같다고 걱정을 하며 밤중에 병원에 다녀오더니 다행히 대상포진은 아니라고 좋아 하기에 꼭 대상포진 예방 접종 하라고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것으로 꼭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시고 건강하게 생활 하세요” 라고 써서 아내에게 주었더니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돈보다 퇴직한 내가 사회생활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니 좋은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추석 상 준비에 보태 쓰라고 봉투에 담아서 아내에게 주었더니 14년 만에 추석 보너스도 받아 본다고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랫동안 못해본 가족 여행도 하여 연휴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는데 이모든 것이 학습센터에서 꿈 높이 선생님으로 근무한 덕택이라고 생각되어 LH공사와 인력개발원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몸이 불편한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 주셔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해주신 행정담당 김 진호 대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화산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아껴주셨고 가까이 지냈던 황명선 선생님도 13년 만에 학습센터에서 만나 식사도 했는데 너무 고마운 분들이라 추석인사문자를 보냈는데 힘을 내라는 마음의 성원이 담긴 격려의 답신이 보행이 불편했던 나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학습센터 일을 통해서 퇴직하여 각자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참여를 통해 유대와 친목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인연도 맺고 또 인연을 연결시켜 가까운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점 및 개선점, 제안하고 싶은 점:

첫째, 처음에 수업용 교재 구입비도 지원해 주시고 중간 시점에 회화에 필요한 어휘학습을 할 수 있는 책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보족함 없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둘째, 더울 때 에어컨 설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더우면 학습에도 효과가 떨어지는데 에어컨을 설치해 주니까 아이도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학생이 방학 때는 피서도 가야되고 친척집 방문이라든가 여행도 가서 견문을 넓히고 마음에 쌓인 피로를 풀어야 하는데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이 기분 전환이 안 될 것 같아 학생이 뜻 깊고 보람 있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학습센터에서 1주일 방학을 학생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5개월 가르치고 중단하게 되면 학습을 정상궤도로 정착 시키는데 문제가 있고 교육의 연속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좋지 않으니 또한 학부형의 간곡한 희망사항이기도 하여 최소 1년 이상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다섯째, 학습실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비치해 놓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영어 원어민 음성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훨씬 효과적이며 필요한 영상 자료도 보여 주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게 삶의 힘이 되어 준 이 가르침을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고 비록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만 준다고 해도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2017년은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준 정말 행운의 해입니다. 특히 나 같은 장애인에게는 하늘을 날게 하는 날개를 달아준 해입니다. LH공사와 인력 개발원 교육관계자님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한없는 행복을 기원합니다.